Changwon Chamber of Commerce & Industry
Changwon CCI

2022년 상반기
창원지역 고용동향

2022. 8

창원상공회의소

Ⅰ. 조사개요

1. 조사목적

○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창원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,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조사방법

○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

·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,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.

· 고용보험DB 법적근거

-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
  (고용보험통계: 승인번호 제327002호)

· 피보험자의 포괄범위

-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'상용', '계약직'인 근로자
  단,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(주15시간) 미만인 자, 국가·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

·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

-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,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
-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, 포괄하지 않은 부분(자영업자, 미가입자,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 등)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
-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

3. 조사기간

○ 2022년 8월 1일 ~ 4일

4. 조사사항

○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규모별, 업종별)

○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

Ⅱ. 요약 및 시사점

◎ **제조업·서비스업 근로자수↑, 창원지역 근로자 수 증가 지속**

- 2022년 상반기 기준 창원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(이하 근로자) 수가 전년동기 대비 2.7% 증가한 26만 4,678명을 기록했음.
- 업종별로 올해 상반기 기준 서비스업이 14만 599명(+3.5%)으로 전체 근로자 수 증가를 견인하였으며, 특히 2012년 이후 감소추세를 이어온 제조업 근로자 수가 지난해 상반기 반등 이후, 올해 11만 525명(+1.7%)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였음. 모든 업종의 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시장이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임.

◎ **'전기장비', '기타운송장비' 제조업 근로자수 증가 견인, '기계 및 장비', '1차 금속' 등 감소세 벗어나**

- 창원 제조업의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끈 주 업종은 '전기장비', '기타운송장비'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.4%, 4.0% 증가하였음. 특히 '전기장비'는 상반기 기준 4년 연속 증가함. 그 이외에도 '기계 및 장비', '1차 금속' 등의 업종이 감소세에서 벗어나 제조업 근로자 수 증가를 이룸.

◎ **근로자 이직·신규취업 모두 증가, 고용시장 호조**

- 창원 2022년 상반기 기준 취업자 및 퇴직자 수는 코로나19 이후 수출입 재개와 일상 회복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활성화 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 취업자 수는 7만 1,918명으로 5.9% 증가했음. 그 중 경력취업자는 6만 3,765명(+6.1%), 신규취업자는 8,153명(+4.5%)임. 퇴직자 수는 6만 7,317명으로 9.2% 늘었음.
- 퇴직 사유별로 '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'가 56.0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'계약만료 및 공사종료' 24.4%, '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' 12.0%, '폐업 및 도산' 2.7%, '정년' 1.5%의 비중을 보였음.
- 지난해와 비교해 비자발적 퇴직 감소와 자발적 퇴직 및 경력취업자 수의 증가는 창원지역 고용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이직성향이 높아 진 것으로 볼 수 있음.

Ⅲ. 창원시 고용동향

1. 창원시 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) 현황

○ 2022년 상반기 기준 창원지역 고용보험[1]에 가입 상시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, 일용직 근로자 제외) 수는 26만 4,678명임. 이는 전년동기대비 2.7% 증가한 수임.

○ 규모별로 ‘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’ 근로자 수가 5.3% 증가한 3만 6,656명, ‘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’ 9만 7,836명(+3.0%), ‘10인 미만 사업장’ 6만 7,202명(+1.9%), ‘300인 이상’ 6만 2,984명(+1.7%)을 기록했음.

창원시 규모별 근로자 수 동향(전년동기대비)

(단위 : 명)

	'2018 상반기	'2019 상반기	'2020 상반기	‘2021		‘2022 상반기
				상반기	하반기	
전 체	246,887 (0.7%)	251,730 (2.0%)	251,440 (-0.1%)	257,693 (2.5%)	261,340 (3.3%)	264,678 (2.7%)
10인 미만	60,886 (2.6%)	62,398 (2.5%)	65,861 (5.5%)	65,981 (0.2%)	69,030 (-0.5%)	67,202 (1.9%)
10인 이상 100인 미만	93,621 (1.0%)	93,604 (0.0%)	92,289 (-1.4%)	94,956 (2.9%)	95,097 (3.1%)	97,836 (3.0%)
100인 이상 300인 미만	33,564 (-0.8%)	33,793 (0.7%)	33,144 (-1.9%)	34,825 (5.1%)	34,409 (6.1%)	36,656 (5.3%)
300인 이상	58,816 (-1.0%)	61,935 (5.3%)	60,146 (-2.9%)	61,931 (3.0%)	62,804 (6.6%)	62,984 (1.7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1) 고봉보험 적용제외 근로자(고용보험법 제8조, 10조 및 령 제2조, 제3조)
-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(단,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)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
-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, 단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에 가입할 수 있음.
-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
-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
- 외국인근로자(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,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)

2. 창원시 업종별 근로자 현황

○ 2022년 상반기 기준 업종별(대분류)로 제조업, 서비스업, 건설업, 기타업종의 근로자 수가 모두 증가하였음.

창원지역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14만 59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.5%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 수 증가를 견인하였음. 특히 제조업도 11만 52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.7% 증가하여, 상반기 기준 12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이어온 제조업 근로자수가 2021년 반등에 이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음

창원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(전년동기대비)

(단위 : 명)

	'2018 상반기	'2019 상반기	'2020 상반기	'2021 상반기	'2021 하반기	'2022 상반기
전 체	246,887 (0.7%)	251,730 (2.0%)	251,440 (-0.1%)	257,693 (2.5%)	261,340 (3.3%)	264,678 (2.7%)
제조업	110,919 (-0.5%)	109,466 (-1.3%)	106,694 (-2.5%)	108,689 (1.9%)	109,871 (2.2%)	110,525 (1.7%)
서비스업	122,451 (1.9%)	129,012 (5.4%)	131,551 (2.0%)	135,892 (3.3%)	138,118 (4.4%)	140,599 (3.5%)
건설업	10,314 (-2.6%)	9,985 (-3.2%)	9,878 (-1.1%)	9,931 (0.5%)	10,027 (0.9%)	10,274 (3.5%)
기 타	3,203 (3.5%)	3,267 (2.0%)	3,317 (1.5%)	3,181 (-4.1%)	3,324 (3.4%)	3,280 (3.1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서비스업은 '도매 및 소매업', '운수 및 창고업', '숙박 및 음식점업', '정보통신업', '금융 및 보험업', '부동산업', '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', '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', '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', '교육 서비스업', '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', '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', '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'을 포함하고 있으며, 기타는 '농업, 임업 및 어업', '광업', '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', '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', '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', '국제 및 외국기관'을 포함함.

○ 창원 제조업의 업종별 근로자 수는 '기계 및 장비'가 2만 9,493명으로 가장 많았고, '전기장비' 1만 8,198명, '자동차 및 트레일러' 1만 6,935명, '1차 금속' 9,615명, '기타 운송장비' 9,179명 순임.

○ 제조업 중 ‘전기장비’(+6.4%), ‘식료품’(+4.2%), ‘기타운송장비’(+4.0%), ‘금속가공제품(기계 및 가구 제외)’(+3.0%), ‘전자부품’(+2.9%), ‘1차 금속’(1.2%), ‘기타 기계 및 장비’(+0.9%) 등의 순으로 근로자가 증가하였음.

창원 제조업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(전년동기대비)

(단위 : 명)

	'2018 상반기	'2019 상반기	'2020 상반기	‘2021		‘2022 상반기
				상반기	하반기	
제조업	110,919 (-0.4%)	109,466 (-1.3%)	106,694 (-2.5%)	108,689 (1.9%)	109,871 (2.2%)	110,525 (1.7%)
기타 기계 및 장비	31,454 (3.2%)	30,888 (-1.8%)	29,256 (-5.3%)	29,240 (-0.1%)	29,494 (0.7%)	29,493 (0.9%)
전기장비	12,623 (-1.7%)	12,941 (2.5%)	15,383 (18.9%)	17,109 (11.2%)	17,789 (8.9%)	18,198 (6.4%)
자동차 및 트레일러	18,380 (-2.9%)	17,691 (-3.7%)	16,663 (-5.8%)	16,976 (1.9%)	16,825 (0.3%)	16,935 (-0.2%)
1차 금속	12,126 (-3.1%)	11,349 (-6.4%)	9,883 (-12.9%)	9,505 (-3.8%)	9,682 (0.2%)	9,615 (1.2%)
기타 운송장비	9,956 (-8.8%)	10,016 (0.6%)	9,615 (-4.0%)	8,826 (-8.2%)	9,156 (1.9%)	9,179 (4.0%)
금속가공제품 (기계 및 가구 제외)	8,051 (-1.0%)	8,014 (-0.5%)	7,722 (-3.6%)	7,954 (3.0%)	8,219 (3.8%)	8,193 (3.0%)
전자부품	6,215 (3.3%)	6,397 (2.9%)	6,380 (-0.3%)	7,051 (10.5%)	6,930 (6.0%)	7,259 (2.9%)
의료, 정밀, 광학기기, 시계	3,490 (5.1%)	3,445 (-1.3%)	3,470 (0.7%)	3,550 (2.3%)	3,501 (-1.8%)	3,288 (-7.4%)
식료품	1,501 (-2.8%)	1,634 (8.9%)	1,608 (-1.6%)	1,692 (5.2%)	1,737 (3.4%)	1,763 (4.2%)
고무 및 플라스틱	1,823 (-4.5%)	1,756 (-3.7%)	1,728 (-1.6%)	1,646 (-4.7%)	1,420 (-19.1%)	1,440 (-12.5%)
기타	5,300 (10.2%)	5,335 (0.7%)	4,986 (-6.5%)	5,140 (3.1%)	5,118 (1.0%)	5,162 (0.4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기타 제조업은 ‘가구’, ‘가죽·가방 및 신발’, ‘목재 및 나무제품(가구제외)’, ‘비금속 광물제품’, ‘섬유제품(의복제외)’, ‘음료’, ‘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’, ‘의복·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’, ‘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’, ‘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의약품 제외)’을 포함함.

○ 창원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’(3만 9,070명)가 가장 많았고, ‘도매 및 소매업’(1만 5,677명), ‘사업시설 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’(1만 4,767명), ‘전문, 과학 및 기술’(1만 3,680명), ‘운수 및 창고업’(1만 288명), ‘교육’(9,474명), ‘숙박 및 음식점업’(9,383명)이 뒤를 이었음.

창원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 추이(전년동기대비)

(단위 : 명)

	'2018 상반기	'2019 상반기	'2020 상반기	‘2021		‘2022 상반기
				상반기	하반기(누적)	
서비스업	122,451 (1.9%)	129,012 (5.4%)	131,551 (2.0%)	135,892 (3.3%)	138,118 (4.4%)	140,599 (3.5%)
보건업·사회복지	30,095 (4.2%)	32,807 (9.0%)	34,784 (6.0%)	36,983 (6.3%)	38,057 (7.4%)	39,070 (5.6%)
도·소매업	14,262 (2.8%)	14,762 (3.5%)	14,783 (0.1%)	15,143 (2.4%)	15,836 (6.6%)	15,677 (3.5%)
사업시설 관리·지원	16,621 (3.3%)	15,301 (-7.9%)	14,047 (-8.2%)	14,104 (0.4%)	14,467 (4.2%)	14,767 (4.7%)
전문, 과학·기술	11,278 (-3.0%)	11,783 (4.5%)	12,404 (5.3%)	13,137 (5.9%)	13,425 (3.8%)	13,680 (4.1%)
운수·창고	10,611 (-0.7%)	11,003 (3.7%)	10,529 (-4.3%)	10,407 (-1.2%)	10,362 (1.3%)	10,288 (-1.1%)
교육	7,482 (-2.9%)	8,423 (12.6%)	8,751 (3.9%)	9,214 (5.3%)	9,207 (4.1%)	9,474 (2.8%)
숙박·음식점	7,360 (11.3%)	8,205 (11.5%)	8,547 (4.2%)	8,627 (0.9%)	8,953 (3.8%)	9,383 (8.8%)
협회·단체 수리·기타	5,692 (-7.0%)	5,788 (1.7%)	5,884 (1.7%)	6,099 (3.7%)	5,987 (3.9%)	6,238 (2.3%)
부동산	4,308 (19.3%)	5,540 (28.6%)	5,957 (7.5%)	6,210 (4.2%)	5,645 (0.2%)	6,109 (-1.6%)
공공·국방·사회보장	5,125 (2.5%)	5,173 (0.9%)	5,525 (6.8%)	5,668 (2.6%)	5,726 (2.2%)	5,503 (-2.9%)
금융·보험	5,142 (-0.6%)	5,176 (0.7%)	5,161 (-0.3%)	5,072 (-1.7%)	5,053 (-1.7%)	4,932 (-2.8%)
정보통신	2,370 (-0.3%)	2,530 (6.8%)	2,535 (0.2%)	2,775 (9.5%)	2,873 (4.4%)	2,741 (-1.2%)
예술·스포츠·여가	2,105 (-11.7%)	2,521 (19.8%)	2,644 (4.9%)	2,453 (-7.2%)	2,527 (-0.9%)	2,737 (11.6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3. 창원시 고용보험 자격 취득(취업)·상실(퇴직) 현황

○ 2022년 상반기 기준, 노동이동의 현황을 보여주는 취업자 수는 7만 1,91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.9% 늘었고, 퇴직자 수도 6만 7,317명으로 9.2% 증가했음.

○ 취업자 중 경력취업자는 6.1% 증가한 6만 3,765명, 신규취업자는 4.5% 증가한 8,153명을 기록했음.

○ 취업자와 퇴직자 수는 코로나19 이후 수출입 재개와 일상 회복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활성화 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취업 및 퇴직자 수(전년동기대비)

(단위 : 명)

	'2018 상반기	'2019 상반기	'2020 상반기	'2021		'2022 상반기
				상반기	하반기(누적)	
취업자	65,609 (8.2%)	66,639 (1.6%)	59,100 (-11.3%)	67,907 (14.9%)	69,505 (8.3%)	71,918 (5.9%)
신규취업자	7,102 (2.3%)	8,245 (16.1%)	6,850 (-16.9%)	7,804 (13.9%)	7,445 (0.1%)	8,153 (4.5%)
경력취업자	58,507 (9.0%)	58,394 (-0.2%)	52,250 (-10.5%)	60,103 (15.0%)	62,060 (9.3%)	63,765 (6.1%)
퇴직자	64,119 (11.6%)	66,513 (3.7%)	63,135 (-5.1%)	61,640 (-2.4%)	64,399 (4.1%)	67,317 (9.2%)

※ 행정통계를 확정한 이후 취득·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, '전분기 피보험자 + 당분기 취득자 - 당분기 상실자'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○ 2022년 상반기 기준 퇴직 사유별로 살펴보면 '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'가 3만 7,680명(비중 56.0%)로 가장 많았고, '계약만료 및 공사종료' 1만 6,432명(24.4%), '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' 7,973명(11.8%), '폐업 및 도산' 1,668명(2.5%), '정년' 1,218명(1.8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○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여 ‘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’의 비중은 2.1%p 증가하였고, 반면에 ‘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’(-1.3%p), ’사업장 이전, 근로조건변동,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‘(-0.7%), “폐업, 도산”(-0.6%p) 등이 감소하였음.
이러한 비자발적 퇴직 감소와 자발적 퇴직 및 경력취업자 수의 증가는 창원지역 고용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이직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.

2022년 상반기 사유별 퇴직자 수(전년동기대비)

(단위 : 명)

퇴직 사유	2021년 상반기	2022년 상반기	증감률
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	33,189 (53.8%)	37,680 (56.0%)	(2.1%p)
계약만료, 공사종료	15,099 (24.5%)	16,432 (24.4%)	(-0.1%p)
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(해고, 권고사직, 명예퇴직 포함)	8,074 (13.1%)	7,973 (11.8%)	(-1.3%p)
폐업, 도산	1,871 (3.0%)	1,668 (2.5%)	(-0.6%p)
정년	1,232 (2.0%)	1,218 (1.8%)	(-0.2%p)
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, 권고사직	704 (1.1%)	773 (1.1%)	(0.0%p)
이중고용	180 (0.3%)	730 (1.1%)	(0.8%p)
사업장 이전, 근로조건변동,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	860 (1.4%)	470 (0.7%)	(-0.7%p)
고용보험 비적용	334 (0.5%)	249 (0.4%)	(-0.2%p)
분류불능	97 (0.2%)	124 (0.2%)	(0.0%p)
계	61,640 (100%)	67,317 (100%)	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※ 고용보험 비적용 제외, ( )는 전체 퇴직자 중 비중